

기획조사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 2

The logo for KOTRA (Korea Trade Promotion Agency) is displayed in a bold, blue, lowercase sans-serif font. The letters are closely spaced, and the 'k' has a distinctive shape with a vertical bar on its left side.

목 차

I. 문제제기 / 1

1.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 불나 / 1
2. 북한경제 개방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 4

II. 북한의 경제특구 현황과 전망 / 6

1. 북한의 경제특구 현황 / 6
2. 북한의 경제특구 전망 / 9

III. 개성공단 투자환경

- 유사공단과의 비교를 통한 개성공단 투자환경 고찰 / 13

1. 공단개황 / 13
2. 청도공단과 개성공단 투자 환경 비교 / 22
3. 청도공단 대비 개성공단의 비교 우위 / 29
4. 개성공단 발전 가능성 / 33
5. 개성공단 투자사례 / 35

IV. 결론 / 38

※ 요약

□ 문제제기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6.1.10~1.18 기간동안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를 상기하게 하는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 중국 남방의 초기 개방 지역 방문하였음.
- 이번 방중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학습하고 북한의 개방이 가속도가 붙을 전망
- 특히 김위원장의 행보가 중국의 남부지방의 경제특구에 집중되어 이번 방중으로 북한은 경제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건설돼 남북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아래, 북한의 주요 경제교류 대상 지역과 경의선 철도의 남북연계 등 물류 인프라스트럭처를 감안한다면, 현재 접경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특구 전략은 개성-철산-신의주를 잇는 서해안 개방벨트로 확대될 가능성 높음.

□ 북한의 경제특구 현황과 전망

- 북한의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 4개 경제특구 중 나진·선봉과 신의주의 성적은 부진하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 중국이 광둥성 선전에서부터 동부 해안을 끼고 경제특구 개발을 북상시켜 동부해안을 경제특구 벨트로 이은 것과 같이 북한은 신의주-개성을 잇는 서해안 경제특구벨트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는바, 신의주 특구 개발 혹은 신의주 인근의 新경제특구 개발이 추진되면서, 개성공단 개발이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개성공단 투자환경

○ 공단개황

- 2000년 8월 현대-北아태 간 개발합의서 체결로 공단 건설 시작
- 2004년 시범 단지의 공장가동 및 제품생산 시작

- 2006년 1월 현재 시범단지 내 15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공장을 완공하고 4개 기업이 공장 가동 준비 중
- 본단지 1단계 100만평 개발은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 중으로 '06년 말 완료될 계획(1차 5만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분양 추진)

○ 투자 환경

- 장점

- 지리적 요건 : 개성공단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본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거점인 서울 및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물류지기를 확보한 인천과 연결되어 개성(생산)-서울(금융)-인천(물류)의 삼각경제벨트를 구축,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생산비용측면 : 개성공단은 저렴한 분양가, 임금, 소득세 그리고 零세율 등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큼

개성·중국·한국 공단 비교

구분	단위	개성(A)	중국(B)	한국(C)	중국대비(A/B)	한국대비(A/C)
월최저임금	달러	50	99.28	642	0.50	0.12
주당법정 근로시간	시간	48	40	44	1.2	1.1
기업소득세	%	10~14	15	23~28	-	-
평당분양가	원	149,000	480,000	407,550	0.31	0.37

- 단점

- 3通(通行, 通信, 通關) 문제 : 엄격한 절차와 시설 미비로 통행, 통신, 통관에 어려움이 있음.
- 건축비 문제 : 토지 분양가는 저렴하나 건축비는 한국보다 약 30% 정도 더 소요되고 있음.
- 불리한 국제 환경 : 원산지 문제, 전략물자반출문제 등 불리한 국제 환경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중국 청도공단과 개성공단 비교

- 개발의 역사가 20년이 넘는 중국의 공단과 개성공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중국의 유사공단(본고에서는 중국의 청도경제기술개발구를 선정)과 개성공단을 비교, 개성공단의 투자환경을 고찰하고자 함.

- 개성공단의 비교우위
 - 청도공단은 이미 첨단 하이테크 단지로 변모하고 있어 경공업 임가공 수요에 있어서는 개성공단이 유리
 - 임금과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이 비교우위에 있음
 - 외투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각종 우대책이 철폐됨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개성공단은 투자육성을 위해 각종 우대책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

○ 개성공단의 발전 가능성

- 개성공단은 중국 개발구에 비해 다양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들로 투자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음.
- 현재 우리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 및 입주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 몇몇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개성공단의 잠재성을 억누르고 있는 국제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개성공단은 급속도로 발전할 것

□ 결론

-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의 개방은 속도가 붙을 것이며, 그 방향은 개방특구 개발일 것으로 전망되며, 신의주~개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개방특구벨트 개발일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개발이 예상됨.
- 현재의 개성공단 투자환경을 20년 이상 개발되어 성숙기에 접어든 중국의 개발구의 투자환경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지만, 개성공단은 많은 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
- 3통문제와 원산지 문제, 전략물자반출문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의 물꼬를 틀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 방중을 계기로 북측도 개성공단 사업 추진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개성공단의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임.
-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 바, 우리 기업으로서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우리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활용하면서 단기적 투자 성과에 연연해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I. 문제제기

1.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 불나

□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2006.1.10~1.18)

-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상기하게 하는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 중국 남방의 초기 개방 지역 방문



남순강화

- 천안문사태(1989) 후,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셌던 1992년 1월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 남부의 개방 지역(우한(武漢)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 등을 돌면서 개혁개방정책을 표방, 중국의 앞길을 제시한 사건
- 당시 중국이 처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의 길이나, 자본주의의 길이라는 '성사성자(姓社姓資)' 논쟁이 아니라 '삼개유리우(三個有利于)', 즉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과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국력 강화 그리고 인민생활 수준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곧 중국에 유리한 것이고, 중국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덩샤오핑의 주장
- 당시 지식인 사이에서 만연한 이데올로기 논쟁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계획경제 숭배자들에게도 일침을 가하는 이중효과를 거두고 개혁개방정책을 지지, 결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실험을 성공을 거두고 그로 인해 연평균 9.5%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달성.

주) 그림 : 김위원장-후진타오 정상회담, 중앙일보 2006. 1. 19

- 중국 남부의 초기 개방 지역 시찰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개혁개방을 배우기 위한 경제학습
- 중국 개혁개방의 중심지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개혁 개방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
- 화웨이(華爲), 다쭈(大族)레이저 등의 첨단 IT회사, 난사(南沙)항과 옌텐(鹽田)항 등 대표적 컨테이너 항, 그리고 동성(東昇)농장, 중국 작물과학 연구소 등 방문
 - 남부의 대표적 컨테이너항 시찰 - 북한의 개방도시 설계에 참고
 - 첨단생산시스템의 시찰 - 북한의 제조업과 첨단기술 산업 육성이지
 - 대표적 작물연구소 견학 - 북한의 전략적 식량 확보에 참고

주요방문지

화웨이(華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 유럽식 3세대 이동통신 표준인 WCDMA형 시스템과 단말기 연구개발에만 3,500여 명을 투입할 만큼 기술개발에 매진 -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년의 두 배 수준인 47억 5,000만 달러로 급증, 국내 매출을 처음으로 앞질러 중국에서 탄생한 다국적 기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다쭈(大族)레이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최대의 레이저가공설비업체
난사(南沙)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류를 흡수하는 물류항
옌텐(鹽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전의 대표적인 컨테이너항
동성(東乘)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기업가가 설립하여 기계농법을 실현하고 있는 농업현대화 전문기업
중국 작물과학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농업과학원 산하 39개 연구소 중 하나 - 벼, 보리, 콩, 감자 등 곡식에 관한 품종 개량과 재배 방법 연구

- 주요 수행원으로는 박봉주 총리, 강석주 외무성 제 1부상,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 리광호 과학교육부장 등 경제관련 인사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7일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 시 중국의 발전상에 감명을 받았다고 발언
 - "중국의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 "중국의 발전상이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정책에 따른 결과"

○ 북한경제의 개방 확대 가능성

- 2005년 후진타오 주석 방북 시 중국의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대규모 대북 투자 및 지원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일정부분 전제로 했을 것으로 보임.1)
- 김정일 위원장 방중 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언제나 크게 변화했음.

김정일 방중 전후 경제정책 변화 사례

2000년 5월 첨단정보통신 도시 (베이징 중관춘) 시찰	- '단번도약론' 제시, - IT 산업을 경제회복을 위한 중심고리로 강조 -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간 합의서 체결, 개성공단 개발 사업 본격
2001년 1월 첨단산업·금융 도시 (상하이 푸둥지구) 시찰	- '신사고', '종자론', '신자력 경쟁론' 등을 주창 - 3實(실리, 실력, 실적)을 강조 - 김정일 경제관리개선 방침 하달 - 2002년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2004년 4월 대표적 공업중심도시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내각 직속기관으로 격상 - 내각 산하에 성급기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신설

- 김정일 위원장의 과거 방중 이후 경제개혁사례로 볼 때, 올해에도 북한경제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이번 방중 기간 중 중국의 남부지방의 경제특구를 집중적으로

1) 김정일 위원장의 訪中과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전망, 정형근,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2호

둘러본 점을 근거로 경제 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됨.

2. 북한경제 개방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 개방특구 개발 가능성 높아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중국 남부의 초기 개방 지역에 집중
 -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이 주요 방문지로 베이징(北京)에서의 정상회담 일정을 제외하면 일정의 대부분을 남부 개방 지역 시찰에 할애
 - 2000년 5월 상하이 방문 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현장을 확인한 뒤 장쩌민 주석의 제안²⁾을 수용, 개성공단 개발을 추진했던 전례가 있어 북한경제의 획기적 변화가 기대됨.
- 개방도시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항구 등이 방문 일정에 포함
 - 김위원장이 방문한 난사(南沙)항과 염토펜(鹽田)항 등은 중국 개방도시의 대표적 컨테이너항으로 물류 중심으로서 개방특구 설계에 참고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
- 후진타오와 정상회담 시 경제특구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음을 밝힘
 - "5년 전 천지개벽한 상하이를 돌아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에 경제특구를 돌아보면서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노선과 정책이 있어 중국의 앞날이 더욱 밝고 창창하다는 것을 다시 확신합니다."³⁾
- 경제특구 설치에 미국의 경제제재로 막혀버린 외화 유입의 유

2) 당시 장 주석은 홍콩과 인접한 선전특구의 성공을 예로 들면서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개성을 북한 경제개방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후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 임했고, 그 해 8월 당시 정몽헌 현대회장에게 개성을 남한기업정용 특구로 개발해 줄 것으로 요청.

3) 북중 관영 매체의 보도를 근거로 재구성한 두 정상간의 대화 중(중앙일보, 2006. 1. 19)

일한 창구가 될 것이며, 북한 내부 경제에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당장에 정부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 벨트의 추진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장기적으로 서해안 지역을 따라 개방 특구 벨트 건설 가능성

- 이번 방중에서 중국이 광둥성 연안을 따라 3개의 경제특구를 만들었던 사례를 학습
- 주요 경제교류 대상지역과 경의선 철도의 남북연계 등 물류 인프라스트럭처를 감안할 때 북한의 서해안 지역을 따라 경제개방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신의주에서 멀지 않은 철산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음. 북한과 중국은 북한이 유일하게 대북투자자문권한을 인정한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北京華麗經濟文化交流有限公司)를 통해 철산 특구 설치 방안을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건설돼 남북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현재 접경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특구 전략은 개성-철산-신의주를 잇는 서해안 개방벨트로 확대될 가능성 높음.⁴⁾

4) 김정일 訪中은 개방신평탄?, 이상만, 매일경제 2006. 1. 17

Ⅱ. 북한의 경제특구 현황과 전망

1. 북한의 경제특구 현황

□ 나진·선봉

○ 1991년 12월 경제자유무역지대⁵⁾로 지정

-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특구
- 자유무역항으로서 화물중계기지, 제조업중심의 수출가공기지로 육성할 계획이었음.

○ 1993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제정

- 외국인의 투자 100% 허용
- 제조업의 세금 3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최저임금 80달러
- 유가증권사용, 외화 반출입 허용

○ 현재는 신규 투자가 중단된 상태

- 북한은 2010년까지 총 47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98년 말까지 실제 투자액은 8,800만 달러에 그쳤음.
- 우리 기업 중 태영수산·LG 가리비 양식사업 등 총 네 개 기업이 나진·선봉지역에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북한 정부의 정책변화로 사업 추진이 좌절되었음.

□ 신의주

○ 김정일 위원장의 2001년 방중의 후속조치

5) 1999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모두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로 용어 통일.

- 상하이 푸둥 지구 시찰 후 중국의 개혁개방모델을 추구하고자 중국과 국경을 맞댄 신의주를 개발특구로 지정

- 나진·선봉지역의 성과가 부진했던 것도 신의주 특구 지정의 원인

- 2002년 9월 신의주의 132km² 일대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정함

- 50년간 입법, 사법, 행정의 자치권을 부여
- 개인의 상속권과 사유재산권을 허용
- 독자적인 화폐금융제도와 예산 집행권을 부여
-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

- 현재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상태

- 신의주 특별 행정구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하려던 양빈이 중국에 의해 구속되면서 북한은 사실상 신의주 개발을 포기했음.

□ 금강산관광특구

- 북한최초의 관광특구

-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규정하는 정령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25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하면서 명문화 됨.

- 개발과 관광사업 전권은 현대아산이 맡아 수행

- 2005년까지 5억 9,000만 달러, 2006년 이후에는 13억 달러를 투자해 제주도과 같은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 하에 추진.

- 지난해 6월 총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

- 지난해 북한과 현대아산이 김윤규 부회장 사퇴로 갈등을 빚으면서 관광객 수가 줄기도 했지만 지난해 관광객은 28만 명으로 관광시작 이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유지.

□ 개성공단

- 2000년 8월 현대-北아태 간 개발합의서 체결로 공단 건설 시작
 - 2000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의 베이징 중관촌 시찰 이후 남한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발특구로 지정
- 2004년 시범 단지의 공장가동 및 제품생산 시작
 - 시범단지는 본단지 가동시 법, 제도, 투자 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Pilot Project로 조성
 - 1단계 100만평 부지 내 2만 8천 평을 15개 기업에 분양, 본격 가동시킴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2006년 1월 현재 시범단지 내 15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공장을 완공하고 4개 기업이 공장 가동 준비 중
- 본단지 개발도 진행 상황 양호
 - 현재 1단계 100만평 개발은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 중으로 '06년 말 완료될 계획
 - 1차 5만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분양 추진
 - '05. 9 일반공장용지 17개 업체, 협동화사업단지 2개 컨소시엄(6개 업체), 아파트형공장용지 1개 기관을 선정

2. 북한의 경제특구 전망

- 현재 4개의 경제특구 중 금강산관광특구와 개성공단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와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상태

- 중국을 향한 개방특구 개발 가능성 높음
 - 김위원장의 선전특구 집중 시찰과 선전특구의 개성공단 유사성 등으로 개성공단의 우선 개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존재

 - 그러나 한반도는 중국과는 달리 중심이 짧아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개혁개방모델을 그대로 답습하기는 어려움
 - 중국의 선전-북경 간 거리는 개성-평양 간 거리의 약 15배

 - 중국은 선전특구 지정으로 밀려오는 자본주의 사상이 중국의 중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나 북한으로서는 자본주의 사상이 개성을 통해 북한의 심장인 평양으로 밀려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거나 최소한 지체시킬 수 있는 거리적, 시간적 여건이 불리한 상황

 - 북한의 제1의 국가목표는 체제유지로서, 체제가 흔들리는 개혁개방은 원치 않고 있음. 따라서 개성공단 개발은 남측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중국을 향한 특구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임.

 - 신의주특구 재개발 혹은 新경제특구 개발 가능성 높음
 - 따라서 자본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에 유리한 중국 인근의 신의주특구 재개발과 신의주 근처의 새로운 특구를 우선 개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림.

-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자본 진입을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의 자본 진입보다 선호함.
- 신의주가 개성보다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상황도 신의주 혹은 신의주 인근으로의 자본 유입을 북한이 선호하는 원인이 됨.
- 북한이 중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것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의주 특구 혹은 신의주 인근 新개방특구 개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인
- 북한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중국기업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음.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북투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형태도 소규모 광물개발 투자에서 대규모 인프라건설투자로 변화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동북3성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어 신의주 특구를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신의주 건너편인 중국의 단둥시에 국제물류센터가 조성될 예정인 점도 북한이 중국을 향한 특구를 개발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줌.
- 과거 중국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신의주 특구 개발이 좌초했다면 이번 방중을 통해 어느 정도 중국의 양해를 얻었을 가능성이 큼.
- 한편, 신의주 인근에 새로운 개방특구를 건설할 가능성도 있음.
-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北京華麗經濟文化交流有限公司)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평안북도 철산군의 대계도 인근⁶⁾에 '장군항 독립경제구'⁷⁾라는 새로운 특구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현재는

6) 북경화려가 제안한 철산군 대계도 이남 지역은 수심이 깊은 기봉리가 항구로 예정되어 있으며, 특구의 전체 면적은 신의주 특구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北, 신의주 특구 대신 '대계도 경제특구' 추진, 동아일보 2005년 12월 1일

7) 평안북도 철산군 대계도에 위치해 철산경제특구 혹은 대계도 특구로 명칭이 알려졌으나, 동아일보 2006년 1월 16일자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장군항 독립경제구'로 명칭을 붙이는데 합의하였음.



실무책임자를 인선하기 위한 최종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경화려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신의주특구 창설준비위원회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통폐합되면서 신의주특구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북경화려는 신의주와 달리 인구유입

이 거의 없는 철산군의 특구 개발을 제한했다”고 함.8)9)

주) 그림 : ‘장군항 경제구’는 북한판선전특구?, 동아일보, 2006. 1. 16

- 북경화려는 중국 기업들이 설비, 기술 등을 투자하고 북한은 용지와 인력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것이며, 먼저 2km² 면적에 공장 몇 개를 시범 가동한 뒤 특구 규모를 점점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10)
- 경의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개성-철산-신의주를 잇는 서해안개방특구 벨트 건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

□ 개성공단 개발도 꾸준히 추진될 것

○ 개성공단은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시찰한 선전특구와 유사점이 많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큼.

- 1979년 중국의 첫 경제특구로 지정된 선전은 초기 노동집약형 산업을 거쳐 현재는 하이테크 산업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둥관(東莞)지역은 개성공단과 같이 봉제 등 위탁가공 중심의 노동집약형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8) 北, 신의주 특구 대신 ‘대계도 경제특구’ 추진, 동아일보 2005년 12월 1일

9) 그러나 김정일위원장이 신의주 특구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견해가 많음. 그 근거로 김위원장이 과거 현대와의 공단개발 논의 과정에서 개성을 내주기 전에 신의주를 개발할 수는 없느냐는 입장을 내비친 것에서 김위원장이 신의주에 대해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있음.

10) 北, 신의주 특구 대신 ‘대계도 경제특구’ 추진, 동아일보 2005년 12월 1일



- 또한,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60km 떨어져 있어 중국의 선전특구가 개발초기 홍콩과 대만자본의 유입이 쉽고, 거대화고 시장을 활용할 수 있던 것처럼 서울로부터 대규모의 자본 유입이 수월하며, 서울 경기권의 거대 시장에 진입하기 쉬운 지리적 이점이 있음.

- 중국이 광둥성 선전에서부터 동부 해안을 끼고 경제특구 개발을 북상시켜 동부해안을 경제특구 벨트로 이은 것과

같이 북한은 신의주-개성을 잇는 서해안 경제특구벨트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음.

○ 개성공단은 남북간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점진적으로 개발될 것

-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개성공단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나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중국을 향한 특구 개발과 병행하여 개발될 것으로 보임

- 개성공단 개발은 남북간 협의를 거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신의주 혹은 장군항 특구 개발 속도와 발 맞춰 진행될 것

- 북한이 경의선을 축으로 개성-철산-신의주를 잇는 서해안개방특구벨트 건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Ⅲ. 개성공단 투자환경

- 유사공단과의 비교를 통한 개성공단 투자환경 고찰

-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방특구 개발에 있어 분명한 한 축으로 북한은 남측의 자본을 개성공단을 통해 받아들일려고 하고 있음.
- 개성공단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2년이면 중화학공업 및 첨단산업설비 분야의 복합공업단지로 조성되어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육성될 것임.
- 현재는 남측기업들만이 투자하고 있으나, 북한의 개방이 본격화 되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외국기업의 본격적인 러시가 예상되는바, 개성공단의 투자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함.

1. 공단개황¹¹⁾

□ 개발 총계획

- 위치 : 황해북도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 면적 : 2,000만평(65.7km²)
 - 공단부지 : 800만평(창원공단과 비슷한 규모)
 - 배후도시 : 1,200만평(기존 개성시가지 포함)
- 거리 : 서울 60km, 평양 160km, 북방한계선 1.5km
- 사업방식 : 2012년까지 3차에 걸쳐 단계적 개발
- 사업비 : 62.5억 달러

□ 단계별 개발계획

11) 개성공단 투자환경, 한국수출입은행, 2005.12 참조



○ 1단계 개발계획(2002년~2007년)

- 개발방향 :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 조성
- 대상면적 : 100만평
-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자금·설계·분양), 현대아산(시공)
- 사업비 : 3,765억원(정부지원 : 2,245억원)
- 수행방식 :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
- 진행상황 : 현재 1단계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천 평을 조성하여 2004년부터 입주를 시작
- 유치업종 : 사업효과의 조기실현이 가능하고, 비용정감 효과가 크며, 남북간 상호의존성 및 집적효과가 큰 업종(의류, 신발, 가죽, 가방, 식품, 음료, 전기·전자 및 금속기계조립 등)

○ 2단계 개발계획(2006년~2009년)

- 개발방향 : 세계적인 수출기지 조성

-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
- 서울의 금융시장, 인천의 물류 등과 협력체제 구축
- 유치업종 : 경공업, 조립금속 제품, 기계장비 등의 조립, 의료기기·컴퓨터 등 도시형 업종

○ 3단계 개발계획(2008년~2012년)

- 개발방향 :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설비 분야의 복합공업단지
 - 다국적기업 유치,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육성
 -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 분야의 유망업종 유치, 복합공업단지 조성
- 유치업종 : 남북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 공업 및 장치설비 산업, 첨단산업

개성공업지구의 단계별 개발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확장구역	개성시가지	총면적
면적 (만평)	공단	100	150	350	200	-	800
	배후도시	-	100	200	500	400	1,200
	합계	100	250	550	700	400	2,000
개발일정		'02~'07	'06~'09	'08~'12	추후협의	추후협의	-

자료원 : 통일부

주) 2,3단계 개발계획(1,900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북한과 협의 중

□ 지리적 위치

○ 한반도의 중심적 위치

-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한을 연결하는 수송물류망의 중심인 경의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

○ 동북아시아와 연계가 용이

- 인천공항 및 인천항의 물류 수송망을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중국대륙간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을 통해 유럽으로 직접 연결도 가능

○ 대규모 소비시장에 인접

- 우리나라 최대 소비시장인 서울과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유통, 판매 등에 유리한 입지 여건

□ 추진체계

○ 개발사업자 : 토지공사·현대아산

- 역할 : 개성공업지구 개발
- 개발방법 : 부지정리, 하부구조 건설, 투자유치의 방법으로 공업지구 개발

- 개발절차

-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개발업자 ↔ 중앙지도총국)
- 공업지구개발총계획 작성·재출(개발업자 → 중앙지도총국)
- 개발구역 내 시설물 철거(중앙지도총국, 비용은 개발업자 부담)
- 개발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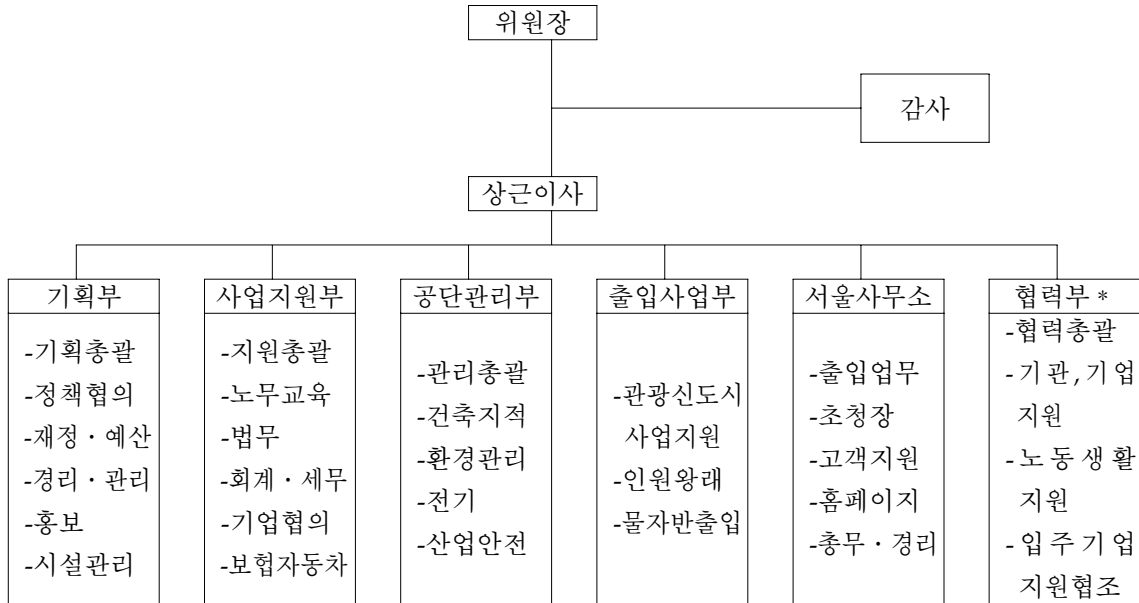
- 개발사업자

- 1단계 100만평 개발 : 토지공사, 현대아산 공동 추진
- 공단전체(2,000만평) : 현대아산

○ 공단관리기관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역할 : 개성 현지에서 공단을 종합 관리하는 기관
 - 기업의 창설 승인·등록·영업허가, 건축허가 및 준공 검사,

공단 기반 시설 관리, 출입증 발급 등의 업무 담당



* 복한 파견 인력으로 구성

○ 남측 정부기관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개성공단 개발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부 산하에 설치
- '04. 10. 5 통일부, 건교부, 산자부, 노동부 등 8개 부처로 구성

조직	세부업무
지원총괄과	-개성공단 개발계획의 총괄·조정 -개성공단 관련 협력사업, 협력사업자, 물자 반출입 승인 등
운영지원과	-개성공단 내 기업인허가 절차 지원 -입주업체간 분재조정 지원 -입주기업 노무관리사항 지원 등
투자지원과	-개성공단 내 전략물자반출에 대한 심사체계관리 -입주기업 생환활동 지원 등
건설지원과	-개성공단 분양관련 사항 지원 -개성공단 내 도로·교통체계수립 지원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지원 등

- 역할

- 관리위원회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개성공단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

○ 북측정부기관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 개성공단 개발·운영을 총괄하는 북측 행정조직
- 역할
 - 개발업자 지정
 -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 기업 요청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 대상 건설 설계 문건의 접수, 보과
 -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 실현
 -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 기타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

□ 개성공단 투자여건의 장단점

○ 장점¹²⁾

- 지리적 요건
 - 개성은 서울과 인천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개성공단 생산품의 소비와 유통은 물론, 철도·도로·해상로를 통해 대규모 물자 및 인원의 왕래가 용이하며 전력공급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본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거점인 서울 및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물류지기를 확보한 인천과 연결되어 개성(생산)-서울(금융)-인천(물류)의 삼각경제벨트를 구축,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12) 개성공단 가는 길, 남북문제연구소, 2005. 5 참조

- 개성공단을 통해 경의선 연결은 물론 중국 횡단철도(TCR)·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도 연결되어 남북한 경제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연결하는 새로운 발전공간으로 확대가 가능함.

- 생산비용측면

- 경쟁력 있는 분양가(평당)

개성공단	구미4단지	시화	청도경제기술개발구	베트남 판뚜언
14.9만원	39만원	150만원	48만원	40만원

- 임금 및 근로시간 :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57.5달러로 확정하고 연간 임금인상 상한선은 5%로 제한되어 있음. 이는 중국 개발구의 100~200달러¹³⁾보다 크게 낮고, 베트남(60달러)에 비해서도 낮은 편임. 반면, 근무시간은 주 48시간으로 책정됨으로써 청도기술개발구의 40시간(중국의 일반적인 근무시간 44시간)보다 많음.
- 기업소득세 :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납부하는 기업소득세는 장려부문(사회간접자본,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결산이윤의 10%, 이외의 기업은 14%로 중국경제특구(청도경제기술개발구 포함)의 기업소득세 15%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 또한 장려부문 및 생산부문에서 15년 이상 운영기로 한 기업은 이윤발생연도부터 5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 다음 3년간 기업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10년 이상 운영기로 한 기업은 이윤발생연도부터 2년간 면제, 다음 1년간 50%를 감면. 이는 중국이 이익발생연도부터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는 것보다 유리.

개성·중국·한국 공단 비교

구분	단위	개성(A)	중국(B) ¹⁴⁾	한국(C)	중국대비(A/B)	한국대비(A/C)
월최저임금	달러	50	99.28	642	0.50	0.12
주당법정 근로시간	시간	48	40	44	1.2	1.1

13) 청도경제기술개발구의 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99.28(1元=0.1241\$ 적용)임.

기업소득세	%	10~14	15	23~28	-	-
평당분양가	원	149,000	480,000	407,550 ¹⁵⁾	0.31	0.37

- 관세의 면제 : 청도경제기술개발구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성공단의 반출입의 경우 민족내부간 거래로 보아 零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단점

- 3通(通行, 通信, 通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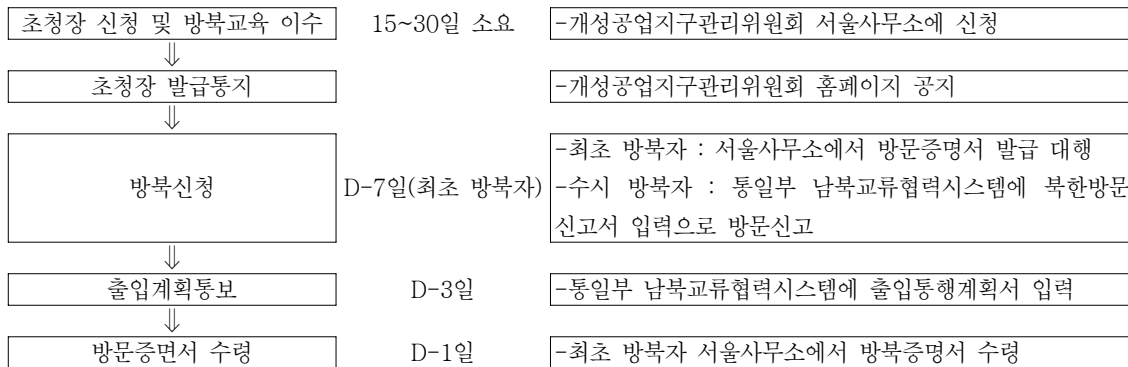
- 통행 : 남북한 통행의 엄격한 절차¹⁶⁾로 인해 안정적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음
- 통신 : 지난해 KT 전화 개설로 전화와 팩스는 사용이 용이해졌으나, 아직까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문제
- 통관 : 개성공단 제품의 남측 반출 및 개성공장 운영 등에 필요한 물품 반입절차 복잡, 입경시 사용 차량은 사전허가가 없는 경우 출경시 제품의 상차가 금지됨으로써 공차 loss율이 발생하여 물류비 상승의 원인 제공

- 물류 문제

14) 청도경제기술개발구를 기본으로 하였음.

15) 국가산업단지분양가(195,000~620,000)의 중간값

16) 현재 방문인원 출입절차는 다음과 같음



- 현재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입주기업 11개사 중 7개사는 자가 차량을, 3개사는 물류회사¹⁷⁾를, 1개사는 자가차량과 물류회사를 혼합하여 이용하고 있음.
- 물류회사 이용 시 D-5일전까지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가차량을 이용하더라도 D-3까지는 반출입 물자의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출입 계획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제품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철도 완공이 지체되고 있어 육로운송에만 의존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 가중¹⁸⁾
- 건축비 문제 : 토지 분양가는 저렴하나 건축비는 한국보다 약 30% 정도 더 소요되고 있음.¹⁹⁾
- 불리한 국제 환경
 - 원산지 문제 : 일반적인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하면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 수출 시 대부분이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산에 대해 무역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 일본, EU 등의 지역으로는 수출이 어려운 실정
 - 전략물자반출문제 :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전략물자반출제한 규정²⁰⁾으로 개성공단에서의 생산 설비 및 가동에 필요한 부품(전자 및 정밀 부품)의 대북 반출에 제약이 존재하여 사업의 진행에 어려

17) 현재 현대택배가 독점하고 있음.

18) 40피트 기준 운송비 비교 (부산 → 서울 → 개성)

육상운송 약 115만원	철도운송(국내요금 기준) 약40만원
-----------------	------------------------

19) 그러나 우리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건축비 기금 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우리 기업이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임.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북한소재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북한 소재 자산은 기업을 창설하고 건물을 환공한 후 담보취득이 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후취담보를 인정하고 있음.

20) 현재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마세나르체제)”와 미국이 자국법에 따라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관리규정(EAR)” 두 가지가 있음.

움이 있음.

2. 청도공단과 개성공단 투자 환경 비교

□ 비교대상으로서 중국 청도경제기술개발구 선정

- 북한개혁개방의 유사모델이 되고 있는 중국 개발구(이하 편의상 공단으로 통칭)중 개성공단과 비교될 수 있는 유사한 공단 선정

- 정부의 개혁개방의지에 의해 선정된 공단
- 내수기반이 아닌 임가공 위주의 생산기지형 공단
- 주 투자기업이 될 한국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공단

이라는 3가지 요건 충족

- 지리적, 정책적 관점에서 청도경제기술개발구가 개성공단과 비교대상으로서 적합

청도경제기술개발구

- 1984년 10월 국무원의 허가를 받고 1985년 3월 정식착공된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 교주만 서해안에 위치, 현재 면적 220km²
- 개발구 내에는 국가급인 청도보세구와 청도신기술개발구가 설립
- 산업에 따라 석유화학공업단지, 국제무역저장가공공업단지, 임항공업단지, 농업 단지, 행정비즈니스중심단지, 종합여행단지, 수출가공단지 등 7개 기능단지로 나뉘어져 있음

□ 두 공단 비교 시 고려요소

- 개발 기간 차이에 따른 단순 비교의 어려움

- 청도공단은 84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 20여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비해 개성공단은 5년이 채 안 되어 개발 기간에 의한 차이는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체제상의 시간차 인정

- 현재 북한의 상황이 청도경제기술개발구 개발 시 중국의 상황보다 오히려 더 체제가 경직되어 있어 추진 상에 난제가 더 많은 상황임을 인지
- 거의 자본주의 개념이 정착된 중국과 아직도 중국의 20년 전 상황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

○ 근로자의 의식수준, 행정기관들의 관리수준, 파견 직원들의 생활여건 등의 제반 인프라수준의 차이점 인정

○ 국제정치 환경의 불리

- 청도공단이 개발될 당시에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중국이라는 큰 시장의 개방이 국제적인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지역에 유럽에 필적하는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중국 개혁개방의 속도를 더해주기 위한 자국의 시장 개방이라는 정치적인 제스츄어를 취해 주었으나 개성은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핵무기 폐기를 둘러싼 문제점으로 전혀 다른 국제정치 환경이 장애가 되고 있음
-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상반된 정치적 제스츄어에 의해 개방이 가속화될 수도, 다소 지체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많아 장기적 관점에서 서로 경쟁

- 두 공단은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나 글로벌 관점에서 같은 지역 내로 평가되고, 동북아지역의 중심위치를 다투는 입장에 있어 일부품목의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경쟁적 관계로 부상할 전망이다.

□ 투자환경 비교

구분		개성공단	청도경제기술개발구
교통 및 물류	도로	경의선으로 남측(통일대교 북단)과 북측(개성)이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개성공단 내 본단지 1단계 도로 공사가 기 착수된 상태(시범단지내 내 부도로와 북한 근로자 출퇴근용 자전거 도로는 2005년 4월 말 완공)	1995년에 준공된 환교주만 고속도로는 청도개발구에서 교주만까지 66km로 제남-청도 고속도로와 연대-청도 1급 도로와 연결
	철도	경의선 문산역(남)-개성역(북) 공사가 2002년 12월 완공되었으나 시험운행은 미시행 단계이며 개성공단 내 관문역이 건설 예정	청도개발구에 膠黃철도가 건설되어 있으며, 청도에서 膠濟철도(청도-제남)와 연결
	공항	인천공항까지 50km	청도공항까지 53km
	항구	개성은 인천항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음 (인천항은 항내 수면적 276만㎡으로 수도 서울의 관문인 동시에 중부지방을 세력권으로 하는 서해안 최대의 상항(商港)임.)	청도항은 중국 대륙항구 중 최대의 컨테이너 부두, 원유부두, 광물석부두, 현대화 석탄부두가 건설되어 있음.
통신	전화	KT가 지난해 전화를 개통했으며, 향후 2,000회선 설치할 계획	전화교환기 10만 여대가 설치되어 있음.
	인터넷	현재 인터넷 사용은 불가능	ADSL, 광케이블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자는 27,084호(戶)임. 인터넷 : 120mb/s.
전력		개성시 전력으로 전력소요량 충당이 어려워 남측이 전력을 지원하고 있음(문산배전소에서 개성공단 시범단지까지 218개의 전봇대를 설치하여 '05년 3월 16일부터 시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개시)	청도개발구의 전력은 산동성 전기망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전력공급이 충분(황도발전소의 전기용량은 67만KW로서 산동성 4대 화력발전소 중의 하나이고 현재132만KW 용량의 확장공사를 준비 중)
수자원	용수	현재 시범단지는 지하수 관정 5개를 개발, 기업별로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1단계 개발에는 율고저수지를 이용할 계획임	청도개발구는 일 급수량 22만톤인 시설이 건설되어 있으며, 현재 취수원은 管家樓 저수댐에서 개발구로 10만 톤의 물 공급, 그 외에 高家臺, 小珠山, 殷家河 등 저수댐이 설치되어 있음.
	오폐수	현재는 임시폐수처리장(600톤/일) 통	오수처리능력이 일 4만톤 처리장이

	<p>해 처리·방류하고 있으나, '07년3월에 오·폐수 처리장(3만톤/일)이 완공 예정임.</p>	<p>건설되어 있음</p>												
<p>토지제도</p>	<p>○ 담당기관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부동산 소유 :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에서 토지용권 취득 또는 건물 소유 가능 ○ 부동산 취득 : 분양 또는 양도의 방법으로 소유 ○ 토지 임대료 및 사용료 : - 임대료²¹⁾ :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는 '04.4.13 중앙지도총국과 1단계 100만평에 대한 별도 토지이용증을 취득하고 토지임대료 지급(평당 14.9만원) - 사용료²²⁾ : 중앙지도총국과 관리위원회 합의로 책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미정인 상태,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 또는 임차한 기업·기관은 당해 계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매년 납부</p>	<p>○ 담당기관 : 개발국 국토자원국 ○ 부동산 취득 - 국가로부터 양도방식에 의한 토지 사용권 매입 - 행정 배당 방식에 의한 토지 사용권 취득 - 중국기업의 합자 - 재양도 방식에 의한 사용권 취득 - 가옥 및 투자 임차 ○ 토지 임대료 : 14.5\$/m²(평당 약 48만원) ○ 토지 사용료</p> <table border="1" data-bbox="906 913 1353 1160"> <thead> <tr> <th>구분</th> <th>최저</th> <th>최대</th> </tr> </thead> <tbody> <tr> <td>공업용지 사용료</td> <td>인민폐80원 /m²/년</td> <td>인민폐120원 /m²/년</td> </tr> <tr> <td>상업용지 사용료</td> <td>인민폐90원 /m²/년</td> <td>인민폐150원 /m²/년</td> </tr> <tr> <td>주택용지 사용료</td> <td>인민폐70원 /m²/년</td> <td>인민폐85원 /m²/년</td> </tr> </tbody> </table>	구분	최저	최대	공업용지 사용료	인민폐80원 /m ² /년	인민폐120원 /m ² /년	상업용지 사용료	인민폐90원 /m ² /년	인민폐150원 /m ² /년	주택용지 사용료	인민폐70원 /m ² /년	인민폐85원 /m ² /년
구분	최저	최대												
공업용지 사용료	인민폐80원 /m ² /년	인민폐120원 /m ² /년												
상업용지 사용료	인민폐90원 /m ² /년	인민폐150원 /m ² /년												
주택용지 사용료	인민폐70원 /m ² /년	인민폐85원 /m ² /년												
<p>조세제도</p>	<p>○ 소득세 - 세율 : 당기순이익(결산이익)의 14% (회계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단, 하부구조건설, 경공업, 첨단과 학기술부문(장려부문) 은 10%, 당기순이익 계산이 어렵거나 연간 판매 및 요역수입액이 300만 달러 미만 부문은 연간 판매 및 서비스(봉사) 수입액의 1.5~2% 적용 - 면제 및 감면 · 예정기간 전에 철수, 해산, 재투자 자본 회수 시 면제·감면분 과세 · 장려·생산기업 - 경영기한이 15년 이상이면 이윤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면제, 면제 종료 후 3년간 50% 감면 · 서비스기업 -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이면 이윤발생년도로부터 2년간 면제, 면제 종료 후 1년간 50% 감면 · 이윤재투자 - 재투자 다음해에 재투</p>	<p>○ 소득세 - 세율 : 개발구내 외국인투자 생산성 기업은 15% 소득세율을 적용 - 면제 및 감면 · 생산성 기업-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이면 이윤발생년도로부터 2년간 면제, 3~5년은 절반 감면 · 농림축산업 기업-소득세 우대 기간 만료 후 기업이 신청하고 국무원의 허가가 있을 때 10년 내 15~30% 감면 · 선진기술업체-3년 연장하여 50% 감면 · 수출주도형기업-감면기간 만료 이후 제품 수출액이 당해연도 생산총액의 70% 이상에 달할 경우 10% 소득세율을 적용 · 이윤재투자-경영기간이 5년 이상이면 기납부한 소득세 40% 환급하며, 재투자기업이 수출형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인 경우 재투자부분에 해당하는</p>												

	<p>자부문 소득세 70%감면</p> <p>○ 재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공업지구내 소유하고 있는 영구건물(매년 1월 1일 기준) - 과세표준 : 영구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현지가격 - 새로 건설한 건물 소유 시 등록된 말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table border="1" data-bbox="443 622 880 779"> <tr><td>건물용도</td><td>세율</td></tr> <tr><td>생산용건물</td><td>0.1%</td></tr> <tr><td>주택용건물</td><td>0.2%</td></tr> <tr><td>상업용건물</td><td>0.5%</td></tr> <tr><td>오락용건물</td><td>1.0%</td></tr> </table> <p>○ 거래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생산부문의 기업 - 면제 : 생산제품을 남한지역 혹은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 - 과세표준 : 생산물의 판매수입금 <table border="1" data-bbox="443 1003 880 1249"> <tr><th>생산제품</th><th>세율</th></tr> <tr><td>-전기, 전자, 금속, 기계제품</td><td rowspan="3">1%</td></tr> <tr><td>-연료, 광물, 화학, 건재, 고무제품</td></tr> <tr><td>-섬유, 신발, 일용, 가죽, 기타 공업제품</td></tr> <tr><td>-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td><td>2%</td></tr> <tr><td>-술, 담배, 기타 기호품</td><td>15%</td></tr> </table> <p>○ 영업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서비스부문의 기업 - 과세표준 : 교통운수, 체신, 상업, 금융, 광고, 여관, 급식, 오락, 위생편의 등의 서비스 수입금과 건설부문의 건설물 인도 수입금 - 면제 :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 생산 및 공급 부문과 상하수도, 용수, 도로부문에 투자운영기업 <table border="1" data-bbox="443 1653 880 1899"> <tr><th>영업부문</th><th>세율</th></tr> <tr><td>-건설, 교통운수, 체신, 금융</td><td rowspan="3">1%</td></tr> <tr><td>-급식, 여관, 관광, 위생편의</td></tr> <tr><td>-교육, 문화, 체육, 기타 봉사부문</td></tr> <tr><td>-상업부문</td><td rowspan="2">2%</td></tr> <tr><td>-부동산거래부문</td></tr> <tr><td>-오락부문</td><td>7%</td></tr> </table>	건물용도	세율	생산용건물	0.1%	주택용건물	0.2%	상업용건물	0.5%	오락용건물	1.0%	생산제품	세율	-전기, 전자, 금속, 기계제품	1%	-연료, 광물, 화학, 건재, 고무제품	-섬유, 신발, 일용, 가죽, 기타 공업제품	-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2%	-술, 담배, 기타 기호품	15%	영업부문	세율	-건설, 교통운수, 체신, 금융	1%	-급식, 여관, 관광, 위생편의	-교육, 문화, 체육, 기타 봉사부문	-상업부문	2%	-부동산거래부문	-오락부문	7%	<p>소득세 전액을 환급.</p> <p>○ 증치세(부가가치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수입자재의 가공에 종사할 경우 증치세 면제 - 재배, 농업, 임업, 목축업, 양식업에 종사하고 농산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증치세 면제
건물용도	세율																																
생산용건물	0.1%																																
주택용건물	0.2%																																
상업용건물	0.5%																																
오락용건물	1.0%																																
생산제품	세율																																
-전기, 전자, 금속, 기계제품	1%																																
-연료, 광물, 화학, 건재, 고무제품																																	
-섬유, 신발, 일용, 가죽, 기타 공업제품																																	
-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2%																																
-술, 담배, 기타 기호품	15%																																
영업부문	세율																																
-건설, 교통운수, 체신, 금융	1%																																
-급식, 여관, 관광, 위생편의																																	
-교육, 문화, 체육, 기타 봉사부문																																	
-상업부문	2%																																
-부동산거래부문																																	
-오락부문	7%																																
<p>의환제도</p>	<p>○ 의화보유</p>	<p>○ 의화보유</p>																															

	<p>-계좌개설 : 개성공단에 설립된 은행에 계좌개설(은행은 자유 선택)</p> <p>-제한 : 제한없이 소지하거나 은행에 예금 가능</p> <p>○ 해외송금</p> <p>-귀금속 이외의 외화는 세관 신고없이 외화 반출입 가능</p> <p>-이윤 및 소득의 송금 : 비과세</p> <p>○ 대금결제</p> <p>-결제수단 :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계좌를 이용</p> <p>-결제방식 : 당사자들간 합의로 결정(송금결제, 신용장 결제, 현금결제 중 선택)</p>	<p>-계좌개설 : 수출입결제통화가 미달러화인 경우 통상 미달러화 2개 계좌, 인민폐 2개 계좌 등 총 4개 계좌를 개설</p> <p>○ 외화반출입</p> <p>수출입통관 시 기본이 되는 통관서류인 보관단(報關單)범위 내이면 특별한 제한없이 가능</p> <p>○ 대금결제</p> <p>-결제방식 : 일반적으로 전신환 송금방식(T/T)과 신용증 방식(L/C)을 사용하는데 오래된 거래선인 경우 송금방식(T/T)이 많이 사용됨</p>
<p>통관 및 관세 제도</p>	<p>○ 통관방식 : 신고제</p> <p>-반출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반출 승인 신청</p> <p>-반입시 : 북측세관에 반출입신고서를 미리 제출</p> <p>○ 관세</p> <p>-면제 : 개성공단 반출입 물자 및 북한 기관·기업소·단체 위탁가공 물자</p> <p>-부과 : 외국수입물자의 개성공단지외 북한지역에서 무가공 판매 시</p>	<p>○ 관세특혜</p> <p>-수출관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구내 기업이 개발구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가에서 제한하는 물품 외 수출관세를 면제 · 중국 내 원자재 혹은 반제품을 구입하여 개발구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수출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가공을 거쳐 증가된 가치가 20%이상일 경우 개발구내 생산제품과 동일시하여 세관에서는 관세면제 신청서류에 근거 수출관세를 면제. · 개발구내의 기업이 외지제품을 수출대행하거나 혹은 구입한 뒤 수출할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출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징수. <p>-수입관세</p> <p>《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의 장려류 사업에 속하며 또한 기술을 양도 받은 외상투자기업일 경우 총투자금액내의 자체사용 생산설비를 수입시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상품목록》 이외에는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p>
<p>노동제도</p>	<p>○ 채용 : 간접채용원칙</p>	<p>○ 채용 : 청도경제개발구 직업소개</p>

	<p>-노력알선기업 이용, 필요시 우리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 채용도 가능</p> <p>○ 임금 : 종업원에게 직접 현금 지급(현재는 간접 지불, 북한당국이 일괄 수령)</p> <p>-종업원 월 최저 노임에 기초하여 기업이 임금을 책정</p> <p>-월 최저임금 : 50달러(사회보험료 포함 57.5달러) 임금인상률 연 5% 이하</p> <p>○ 근무시간</p> <p>-주 48시간(계절적 제한사업의 경우 주 60시간까지 가능)</p> <p>○ 해고</p> <p>-30일전까지 당사자에 통보, 해고명단은 노력알선기업에 제출</p> <p>-퇴직보조금 지급(1년 이상 근무자, 3개월 평균 임금에 근로연수 적용)</p>	<p>서비스센터를 통해 채용하거나 노동력시장에서 채용할 수 있음. 관리 및 기술인원의 채용은 일반적으로 개발구 인재교류센터에 위탁하여 채용함.</p> <p>○ 임금(보너스, 수당 포함)</p> <table border="1" data-bbox="927 488 1337 663"> <thead> <tr> <th></th> <th>최저</th> <th>최대</th> </tr> </thead> <tbody> <tr> <td>일반노동자 급여</td> <td>600원/월</td> <td>800원/월</td> </tr> <tr> <td>관리자 급여</td> <td>600원/월</td> <td>1,000원/월</td> </tr> </tbody> </table> <p>○ 근무시간</p> <p>-<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에 따르면 1995년 5월1일부터 근로 시간 규정 주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1일 특근허용시간 3시간, 월 총 특근허용시간 36시간 초과하지 못함.</p> <p>○ 해고</p> <p>-사전에 해당되는 직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p> <p>-만약 工畵가 있을 때는 공회측에도 서면으로 통보하여 공회측의 동의를 구해야 함</p> <p>-최종적으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노동국 또는 노동인사국에 해고 조치 사실을 보고</p> <p>-해고조치의 경우에도 해고 직공에 대해 보통 3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불할 것이 요구</p>		최저	최대	일반노동자 급여	600원/월	800원/월	관리자 급여	600원/월	1,000원/월
	최저	최대									
일반노동자 급여	600원/월	800원/월									
관리자 급여	600원/월	1,000원/월									
<p>분쟁해결제도</p>	<p>○ 관리기관 : 남북상사중재위원회</p> <p>-구성 : 남북 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p> <p>-기능 : 남북 당사자나 당국간 경제교류협력과정상의 상사분쟁 중재, 조정</p> <p>○ 분쟁해결방식</p> <p>-당사자간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 : 공업지구의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p> <p>-상사분재해결절차에 의한 해결 :</p>	<p>○ 관리기관 : 청도개발구노동분쟁중재위원회</p> <p>-기능 : 시장의 자금운영, 시장건설, 기획을 책임지고 시장건설기금 모집, 기업과 직원간의 계약이행으로 인한 임금, 보험, 의료 등 분쟁에 대해 해결</p> <p>○ 분재해결방식</p> <p>-노동분쟁 발생 후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기업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신청</p> <p>-기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분쟁처리의 필수 절차이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p>									

	당사자간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남북이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등으로 해결	거치지 않은 노동분쟁사건은 인민법원이 처리하지 않음.
투자절차	분양계약체결 · 입주확정⇒협력사업(자)승인신청(업체)⇒협력사업자(자)승인(통일부)⇒대북투자신고(은행)⇒개성공단현지법인설립	청도경제기술개발구 대외무역경제합작구 산하에는 외국기업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기구가 있으며 기업등록시 무료 대행도 함. 영업등록 허가증을 받는데 8-10일정도 걸림.

3. 청도공단 대비 개성공단의 비교 우위점

□ 공단발전단계에 따른 입주업체의 차별화로 상대적인 유리 국면 조성

○ 청도공단의 위상 변화

- 최초 경공업제품 위주의 임가공 생산기지형 공단으로 시작되었으나 공단개발 20여년이 지난 지금 첨단 하이테크 단지 육성으로 정책변환이 이루어져 경공업 임가공 수요에 있어서는 개성공단이 유리한 상황
- 청도공단의 경우 공단입주희망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 첨단 하이테크 산업만을 차별적으로 승인, 경공업 및 소규모 업종의 경우 입주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음. 기준은 畝당 투자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인데, 04년의 경우 1畝(200평)당 투자금액을 US\$30만불을 기준으로 하여 고가의 장비가 투입되는 최첨단이 아니면 승인받기 어렵게 되어 있음.

○ 후발공단으로서의 이점 활용

- 이미 청도공단은 정책으로 경공업 성격의 임가공 투자업체는 청도공단이외의 지역에 투자토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성공단 투자에 비해 불리하므로 개성공단이 가공형 투자의 후발수요를 수용하기에 유리함.

21) 북한으로부터 50년간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획득하는데 지불된 금액

22) 북한으로부터 입차한 토지를 실제 사용함에 따라 매년 지불하는 세금형태

□ 임금의 상승 및 노동력 확보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우위

○ 임금의 상승

- 표준임금의 차로도 청도공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임금은 이의 1.5배에 이르며, 업종간, 또 숙련도에 따라 임금차이가 매우 큼. 이외에도 실 지급급여금액의 40%에 육박하는 각종 사회보장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실제 직원고용에 지급되는 임금성격의 금액은 표면적인 것의 2배를 뛰어넘음.
- 이에 비해 개성공단은 임금 U\$ 50불에 사회보험료 U\$7.5불, 총 57.5불에 불과, 청도공단의 1/5수준임.

○ 노동력 확보의 안정성이 점차 저조

- 노동력공급측면에서도 청도공단지역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짐. 이미 투자수준이 성숙단계에 이르러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숙련공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더 심각. 외지인 고용 시 추가 부담금이 있으며, 동지역내에서도 거리가 멀어 기숙사제공, 출퇴근비 추가 지원 등의 유인책이 없으면 유효인력확보가 쉽지 않음.
- 이에 반해 개성공단은 정책적 차원에서 인력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인력 확보의 안정성 확보에 용이

□ 중국정부 정책의 변화

○ 공단입주시의 각종 우대책 철폐

- 현재 중국정부가 이때까지 외자유치를 위해서 투자기업들에게 주어왔던 각종 정책적 혜택을 철폐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 증치세 환급율도 낮춰지고, 투자기업들의 투자설비에 대한 면세혜택 철폐에 이어 기업소득세에 대한 우대혜택도 철폐될 예정에 있음.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 국가급 개발구(청도공단은 국가급에 해당) 입주기업에 주는 15%

의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이 금년 내로 철폐되어 기업소득세율이 22~23%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이 밖에도 중국정부가 외자기업들에게 주어왔던 각종 직간접적인 우대혜택이 축소되거나 철폐되는 과정에 있음.

○ 개성공단의 공단초기 우대혜택 활용이 가능

- 개성공단은 막 시작하는 공단이므로 중국정부가 공단난립에 따라, 또 내국민대우 정책 시행으로 세제, 각종 부담금에서 특별대우를 하지 않으려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축소하거나 폐지되는 우대혜택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생산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음.

□ 대중 투자기업들의 경영여건 악화

○ 중국정부의 외자기업 관리 강화

- 외자기업들에게 주는 우대혜택의 감소, 철폐와 더불어 외자기업들에게 대한 관리가 강화됨으로서 간접비용이 증대되고,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정책상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를 우선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 임가공형태의 무역은 산업 및 사회 인프라가 발달한 연해 쪽 진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 더군다나 서부대개발에 따라 진행되는 내륙개발로 저부가가치업종은 내륙 쪽 투자를 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임가공형 진출지역으로서는 환경이 나빠지고 있음.

○ 한국기업들, 투자지역으로서 대체지역 모색

-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다시피 한국투자기업들의 철수가 가시화되고 있음. 높아진 연해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에다 중국정부의 우대정책의 축소, 관리의 강화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임가공 투자대체지역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를 고려하는 등의 상황이므로 대체지로서 개성공단의 유리점이 더욱 부각됨.

□ 지리상 잇점 활용에 있어 유리한 국면

○ 투자자가 보는 양공단의 지리적 조건

- 외국투자자가 보는 청도공단과 개성공단의 지리적인 조건은 유사한 것으로 인식. 이에 따라 우위인식의 기초는 공단과 연결되는 국제적인 인프라가 어떠한가 크게 결정

○ 청도공단의 지리적 이점보다 인천을 배후에 끼고 있는 개성공단이 유리

- 청도가 장강이북지역에서 최고의 양항(수심 22m)으로서 산동성에서 유일하게 환적 필요 없이 미주와 유럽시장으로 연결되는, 중국북부지역에서 가장 유리한 항구를 끼고 있기는 하지만 인천항구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
- 국제선과 연결되는 인프라가 훌륭히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물류비용 절감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청도공단과 개성공단의 경쟁력 결정에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남북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개성공단은 남북경제 협력사업의 모델

-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시금석으로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당위성 존재
- 입주업체에 대한 남북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되고, 특히, 한국정부의 입주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자금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준비되고 있음.

○ 국제적인 관심 고조

- 해외 또한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진전이 투자와 무역을 포함한 북한과의 전반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이며, 북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4. 개성공단 발전 가능성

□ 개성공단 발전의 가능성

- 개성공단은 중국의 개발구에 비해 다양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투자환경의 문제점들로 그 잠재성이 평가절하되고 있음
-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원보장이 선행되고, 경제적 논리보다 북한의 핵폐기등과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인 난제가 순조로이 해결된다면 개성공단의 비교우위성은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아직까지 이와 같은 문제들이 각국간의 이해관계로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개성공단의 잠재성을 억누르고 있지만, 향후 국제정치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병행된다면 투자대상으로서의 개성공단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

○ 3통문제 해결

- 3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측, 미국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북한의 개방의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완화 등이 요구됨.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완화는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루어질 문제

-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개방에 대한 의지 표명이 기대되고 있어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함.
- 조만간 전자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입증과 방북 승인·신고를 One-stop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임. 일례로 입주기업의 경우 인원 및 차량 통행이 연중 자유롭게 입출경할 수 있는 ID-Card 발급을 통한 One-stop 입출경 통행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임.

○ 물류시스템 개선 전망

- 남북간 물류 시스템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전개 중
-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제품생산단계가 아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제품 수량이 많지 않고 수출물량이 아닌 내수물량이 대부분이어서 자체운송이 가능했지만, 향후 전문 물류회사를 통한 제품운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문 물류회사를 통한 운송시스템 개선 및 다수의 물류회사를 참가시켜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
- 경의선 철도를 통한 철도운송 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노력 전개
- 물류공동화 및 공동 물류센터 등을 운영하여 운송의 loss율을 최소화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현재 파주 등지에 공동물류센터를 건설하여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여 적기에 설비 및 생산제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하려하고 있음²³⁾

23) 손학규 경기도 지사도 파주등 접경지역을 개성공단과 연결하여 경제특구로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힘. 주강의 흐름은 북한 변화의 물결을 예고하는가. 손학규. 2006. 1. 14

○ 원산지 문제와 전략물자 반출문제

- 원산지 문제와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및 국제적 정세 등의 영향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중
- 원산지 문제는 아직 통일된 원산지 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바, 우선적으로 북한산에 대한 제재가 없는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시장 등에 집중한 후 점차 일본과 EU시장으로 넓혀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시장을 개척하는 다단계 접근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
- 정부는 최근 한국-싱가포르간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주요국과 FTA 협상을 하는 등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음
-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발간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²⁴⁾ 등의 사업을 전개 중
- 또한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타지역이 아닌 개성공단에 전략물자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측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개성공단이 북측지역이 아닌 경제특구라는 개념을 갖도록 노력을 경주 중

5. 개성공단 투자사례²⁵⁾

□ 삼덕통상 주식회사

○ 회사소개

- OEM, ODM 신발생산업체

24) 2006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국내박람회 2회(Preview in Seoul, 부간국제섬유패션박람회) 해외 박람회 2회(Preview in Shanghai, 뒤셀도르프 국제 신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할 예정임

25) 개성공단 투자환경, 한국수출입은행, 2005. 12 참조

- 1997년 설립, 이듬해 수출 500만불탑 수상, 그 다음해 수출 1,000만불탑 수상 및 무역의 날 수출유공자 수상 등 비약적 성장
- 부산 본사 공장을 중심으로 현재 청도와 개성에 공장을 운영 중

○ 사업추진현황

- 2004년 시범단지 입주 신청, 2005년 11월 (주)삼덕스타필드 준공식 개최
- 토지매입 및 공장 건설에 54억 6천만원, 설비구입에 23억원 등 총 84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생산량 기준 재단·재봉 320만족, 프레스 420만족, 완제품 310만족을 생산 중

○ 삼덕통상의 북한 인력에 대한 평가

- 대부분 인력들이 신발제조 관련 업종이나 기타 봉제관련경력이 전무하였으나 교육 실시 3개월 후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5월부터는 생산성이중국이나 남한 대비 60% 수준에 접근
- 작업 생산성은 60%에 불과하였으나, 품질 및 제품관리는 중국이나 여타 동남아국가들에 비해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음.

□ 신원

○ 회사소개

- 우수한 품질과 독창적인 디자인, 전국적인 유통망을 바탕으로 한 국내 정상급 패션업체
- 30년에 걸친 섬유제품 수출 노하우를 가진 업체로 전 세계로 수출 중이며 월마트, 갭, DKNY 등 세계 우수 바이어를 확보하고 있음

○ 사업추진현황

- 투자 및 생산 현황 : 현재 24백평의 부지에 13백평 규모의 공장을 완공하고 5개 설비라인에서 하루 평균 600장 생산 중(서울 일평균 생산량의 60~80% 수준)
 - 판매현황 : 2005년 3월 개성공단 생산 의류를 서울에 첫 출하하였으며, 현재 신원의 각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개성공단에서 월 2만 장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총 생산량의 15~20%를 개성공장에서 생산할 계획
- ⇒ 신원은 개성공장이 해외 여타 현지공장 중 최고의 공장이 될 것으로 기대

IV. 결론

□ 북한의 개방 속도와 방향

-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의 개방은 속도가 붙을 것이며, 그 방향은 개방특구 개발일 것으로 전망됨.
- 개방특구 개발은 신의주를 시작으로 개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개방특구벨트 개발일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개발이 예상되며, 북한의 전향적인 개발의지가 발현될 것으로 보임.

□ 개성공단 투자환경

- 현재의 개성공단 투자환경을 20년 이상 개발되어 성숙기에 접어든 중국의 개발구의 투자환경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지만, 객관적인 비교에서도 개성공단은 입지조건, 생산비 측면에서 중국의 개발구보다 우위에 있음
- 3통문제와 원산지 문제, 전략물자반출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간 관계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을 물꼬를 틀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개성공단 발전 전망

-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으로서도 신의주를 통한 중국 자본의 유치와 개성을 통한 남측 자본의 유치를 통한 경제재건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성공단 사업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속될 것임
-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 바, 우리 기업으로서

는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우리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활용하면서 단기적 투자 성과에 연연해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 이상민 책임연구원(동북아팀)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6년 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